



제목	Empire of Difference: The Ottoma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8. 6. 23.
저자	Karen Barkey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342
ISBN 또는 ISSN	978-0521715331

**내용 요약**

이 책은 오스만제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제국들과 오스만제국을 비교 연구하여 오스만제국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첫째,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스만제국이 오랜 기간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둘째, 그 오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 준 요인들이 왜 설득력을 잃고 결국 오스만제국을 멸망케 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질문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오스만제국의 역사를 ‘등장’, ‘제국의 확립’, ‘재정비’, ‘국민국가로의 전이’라는 네 개의 중요한 순간으로 나누어 그 시기의 사회조직과 통치 구조를 고찰한다. 저자는 오스만제국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융통성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관계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협상한 오스만제국의 능력이 수세기에 걸친 제국의 발흥과 지배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제국의 등장과 확장을 가능케 한 오스만제국 통치자의 융통성과 협상적 관계를 다룬다. 저자는 오스만제국이 제국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채택한 방법과 관용의 역할을 연구한다. 저자에 의하면 오스만제국의 관용은 목적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과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부분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오스만제국이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다. 즉 정책의 변화와 제국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실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8세기에는 약한 중앙정부로 인해 지방 엘리트와 중앙 권력자들의 관계망이 변화했다고 한다.